

이민식 Lee, Minsik

b. 1943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1993 개인전, 남도예술회관

1988 개인전, 광주가톨릭미술관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한국선면예술협회전

현대한국화협회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광주한국화실사회전

남도수묵화협회전

P. 010-4456-5662

Email. lsa212@naver.com

平凡한 所望으로 本源的 喪失을 回復하려는 美學

成 晉 基 全南大學校 · 哲學博士

信岩 李民植이 1970년대 중반 늦으막한 나이로 光州의 화단에 얼굴을 내밀었을 때 많은 사람이 펍 낫설어 했다. 그럴것이 그는 어느 화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다고 특정 선생님의 門下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선보인 작품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데가 있어서 이 無族譜의 에프랑제에게 쏠리는 관심이 더욱 컸던것이다.

그러나 信岩은 어린 국민학교 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 각별한 배려속에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게 되었고, 진학하여서도 수채화와 유화등 점진적인 양화수업을 쌓아왔으며 각종 전람회와 사생대회에서 입상하는등 재질을 보이기도 했다. 그건 순전히 끼있는 선생님의 덕이었지만 내적으로는 信岩 자신의 개인적 삶의 신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信岩은 어려운 가정의 형편 탓도 있었지만 유별난 집념으로 학업성적에서도 수석을 차지하는등 괄목할만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다재다능했던 그가 최종 화도를 택한 것은 그림에 대한 자신의 소질에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림을 그려야한다는 열망에 차있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열망을 한시도 저버린적이 없었고, 계속 충전되어 갔다. 그러나 그 길은 수월치 않았고, 화가로서의 등장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信岩은 오랜 세월을 뜸들인 후 늦으막에 우리들의 시야에 비춰진 것이다. 마치 익은 과일이 되어 쟁반에 오르려는 심사와 같다고나할까.

信岩을 대하면 신중한 인품이 전달되어 온다. 한 치의 허튼 수작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처럼 그는 회화의 창작작업에 있어서도 극히 작은 수작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림을 재주나 테크닉으로 승부를 걸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인간적 진실과 정열을 쏟아내는 그런 것 밖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외롭고 고독한 예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화려한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도 불행감을 느끼지 못한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 어찌 태평가를 꿈꿀수 있다는 말인가.

信岩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해진 스승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러한 無스승의 처지를 자랑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불운으로 간주한다. 나이도들고 녀살도 좋지 못한 성격이 어떤 선생님 앞에 주저앉을 기회를 갖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과 작업에 영향을 끼친 선생님은 한 두분이 아니다. 金峰은 운필을 가르쳐 주고, 梅汀은 애정어린 눈길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碩星은 화도와 인생과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雅山은 인생의 이치를 일러 주었으며, 希哉는 作號를 해주셨다. 어느 특정한 작가와 Family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 大家들 모두가 信岩의 畫道에 빛을 던져준 셈이다. 최근 信岩은 모두 다 선생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화가들 이외에 자기의 작품에 영향을 준 사람과 장소와 사건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친분이 없는 화가들도, 화랑도, 전시장도 그리고 표구점이나 팜플렛까지도 훌륭한 선생노릇을 해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누구 한 사람의 문하생이 되는 기회를 갖지 못한 대신 信岩은 到處先生의 복을 원하는 것 같다.

77년 이후 全每展의 入特選을 시작으로 전남도전, 광주시전에서 한국화 부문 최고상을 각각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88, 89년 도전, 시전 추천 완료로 현재 우리 곁에서 든든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信岩은 늘 긴장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인생도 그렇게 살고 있다. 예술가로서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완벽해보려는 열망에서 생긴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는 것이 과히 싫지 않다.

信岩은 81년 젊은 한국화 그룹인 〈土香會〉를 구성하여 광주화단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 구성원이 전국에 걸쳐 있고 실질적 후원자도 없이 3회에 걸친 회원전을 가진 뒤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土香會가 지향하는 흙의 향기는 필시 우리네의 꿈작은 전통의 향기였지만 단순히 전통을 묵수하려는 작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당시 南畫에 종사하는 많은 작가들의 고뇌에 찬 모색의 대표적 케이스가 토향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信岩의 이번 전시회는 2회째다. 지난 88년 첫 개인전 이후 5년만의 産故를 내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작품전에서 信岩이 전해주려는 메시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우리가 몇번이고 무심코 지나 온 강과 산을 묘사한 實景들이다. 작품마다 우리의 고향 한 어귀를 형상화하고 있다. 아니 내 고향 〈그 대목〉의 정서를 그대로 옮겨 놓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강가와 산길을 헤맸을 것이다. 영산강변의 아망바위, 구례 땅 산동, 화순의 적벽, 만수동, 수만리로, 쌍계사계곡, 후미진 그 어떤 곳, 삶의 흔적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의 텃자리 같은 곳들을 요즘 사람들이 속절없이 잊어버린 처사를 탓하며 서둘러 돌아가라는 채근을 담은 그림들이다.

信岩은 羅州땅 영산강변에 인접한 구석지고 조용한 산골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 사람의 用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작품속에 천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고향은 빈 땅이 되어 찬 바람만 가득하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가슴도 날이갈수록 텅빈채 싸늘한 바람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다. 고향을 잃어가며 아니 고향을 죽여가며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엄청난 상실을 당하는 법이라고 말없이 절규를 보내고 있다. 꼭 우리가 붓따리 챙겨들고 고향가는 차에 오르다는 말은 아니다. 고향이 아닌 그 어떤 곳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자리에 서 있지 못함을 의미할 것이며 그건 동시에 아름다울 수도 없는 법이다.

信岩은 오래전 카톨릭에 귀의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운듯하다. 정든 고향을 매우 낮설게 하는 시멘트로 버무려 놓은 헛간같은 흉물을 눈여겨보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아름다운 것만을 아름답게 안아주고 그려내지 않고 추악한 것까지 사랑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발견한 것이다. 신앙은 산술과 논리로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랑의 辨證法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信岩에게서 예술이 신앙의 수단이라는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리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체득된 사랑의 빛으로 현실세계의 추화 악을 아름다움으로 재조명하는 경지를 터득하고 있다.

이번 전시되는 작품에서 굵직한 直墨을 발견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이후 그 섬세하고 조밀한 붓놀림과는 아주 다르게, 몹시 애쓴 單純과 節制를 눈여겨 볼 수 있다. 이제 장황한 언사나 군더더기 말을 삼가하려는 사람이 되어 회화도 그렇게 密度를 지니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信岩 李民植은 평소 4가족이 부벼대며 살아가는 稅家를 스스로 〈跡仁軒〉이라 부르고 있다. 가난한 그림쟁이가 고결한 선비가 되어 늘 仁의 흔적을 남기며 살려는 사람, 이 생각이 깊은 作家에게 행운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